

(2년차 연구) 장학전형 운영 보완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연구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운영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2023. 11

본 보고서를 『장학전형 운영 보완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기관: 시흥시인재양성연구회

연구책임자	장진명
공동연구원	김은별
	이재현
연구보조원	김보경
	박찬
	손채은
	정예진

연 구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1
제 2절 2022년도 주요 개선점 정리 및 반영 상황	3
제 3절 2023년도 장학전형 연구 방향	7
제 2 장 2023년도 장학전형 현황분석	10
제 1절 2023년도 장학전형 설문조사	10
제 2절 설문조사 결과	13
제 3절 설문조사 시사점	20
제 3 장 예체능 장학전형 보완 방향 수립	23
제 1절 예체능 보완 필요성	23
제 2절 기존 예체능 장학전형 용어 수정 및 평가 배점 세분화	26
제 3절 타 재단 대비 예체능 장학전형 현황 비교	31
제 4절 예체능 장학전형 현직 인터뷰	33
제 4 장 활동형 장학전형 방향 수립 (ESG 장학전형)	41
제 1절 활동형 장학전형에 대한 필요성	41
제 2절 시흥형 장학전형 소개: 시흥형 활동 장학전형 ESG	48
제 5 장 결론	52
참고문헌	55
부 록	56

표 차 례

<표 1> 타 재단 별 장학 팀 인원 및 장학사업 예산 비교	6
<표 2> 일반적 특성	11
<표 3> 문항 구성체계	13
<표 4> 장학전형 신청현황	15
<표 5> 장학전형 만족도	18
<표 6> 재단 정보습득의 방법	16
<표 7> 장학전형 선발인원 적절성	16
<표 8> 장학전형 선발기간 적절성	17
<표 9> 장학전형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의 적절성	18
<표 10> 장학금 수혜용도	19
<표 11> 장학금 유용성	19
<표 12> 2022년 체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23
<표 13> 2022년 예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24
<표 14> 2022년 기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24
<표 15> 예술·산업기능 분야 기준 확대 전	25
<표 16> 체육 분야 용어 수정 전	26
<표 17> 체육 분야 용어 수정 후	26
<표 18> 평가배점표 세분화 수정 전	27
<표 19> 평가배점표 세분화 수정 후	27
<표 20> 세분화 점수 예시	29
<표 21> 통합 실적 예시	29
<표 22> 메달 실적 예시	30
<표 23> 서울시 예체능 장학제도	31
<표 24> 수원시 예체능 장학제도	31
<표 25> 부천시 예체능 장학제도	32
<표 26> 안산시 예체능 장학제도	32
<표 27> 인천광역시 예체능 장학제도	32
<표 28> 2022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하반기 선발결과	41
<표 29>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상반기 선발결과	41
<표 30> 2022년 기준 시흥시 인구 14-26세 총 전입 전출 순 이동 통계	43
<표 31> 타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생 지원조건	44
<표 32> 관내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중인 동아리 활동	45
<표 33> ESG 장학전형 방향성	49

그 립 차 례

<그림 1>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하반기, 상반기 선발결과	5
<그림 2> 2023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활동장학생 모집요강	6
<그림 3> 예술·산업기능 분야 기준 확대 후	25
<그림 4> 입상실적 예시	28
<그림 5>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지역인재, 우수인재) 모집요강	42
<그림 6> 한국 조리과학고 재학생 관내 봉사활동 참여비중	44
<그림 7> 시흥시 관내 운영중인 청소년 기관	45
<그림 8> 관내 청년활동 및 기관	46
<그림 9> 시흥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공대에서 실행하는 각종행사 및 프로그램	47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2004년 10월 15일에 인재양성, 교육지원,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정관 제1조 설립목적에 따르면 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인재양성 사업·교육지원사업·평생학습 진흥·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 진흥 사업을 도모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와 시흥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단은 시흥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정관을 통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흥시인재양성연구회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목적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2022년도를 기점으로 진행 중.
- 이러한 연구 사업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가진 목적성에 부합하는 지역교육 발전,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진행되며, 무엇보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시민, 청년들이 지역 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특히 장학전형은 시민 및 청년들이 직접적 수혜대상 이므로 추후 해당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시흥시인재양성연구회 장학전형은 연구팀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팀원이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현안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치 실현의 통로로서 시흥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의 미래인재 자체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활동이 반영된다는 장점을 가짐.

2) 2023년 2차년도 장학전형 연구 방향

- 2023년도 2차년도 장학전형 연구는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시흥형 장학제도를 결합하여 “지역인재 발굴”과 “시흥교육 발전에 기여”를 위한 장학사업을 제안하고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안들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 장학생과 지원자들이 변화된 장학전형의 효과성 체감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시흥형 장학전형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재단의 비전과 부합하는 새로운 시흥형 장학전형을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년도 2차년도 장학전형 연구는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시흥형 장학제도를 결합하여 “지역인재 발굴”과 “시흥교육 발전에 기여”를 위한 장학사업을 제안하고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안들의 반영 여부 및 추후 보완점, 장학생과 지원자들이 변화된 장학전형의 효과성 체감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시흥형 장학전형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재단의 비전과 부합하는 새로운 시흥형 장학전형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재단의 예·체·기능 장학전형 선발기준이 갖는 모호함과 지원자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현재의 예·체·기능 장학전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 기존의 학업 위주의 장학전형은 성적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에 비해 예·체·기능 분야는 각 분야별 특수성이 두드러지고 기존의 정량적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예·체·기능 장학전형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흥형 장학전형 개발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추가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 고려 중인 활동형 장학전형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타 재단 장학전형 기준 및 시흥시 관내 청소년, 청년의 다양한 활동들을 파악하였음.

2절 2022년도 주요 개선점 정리 및 반영 상황

1) 2022년도 시흥시인재양성연구 요약 및 정리

- 2022년 1차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장학전형 연구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장학사업에 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분석 및 제언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인접한 지역에 있는 타 장학재단과의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함.
- 다음으로 구체적인 장학전형 제언을 위해 재단의 3개년도 장학생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단의 장학사업 신청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보완사항들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재단의 장학기금 기탁자, 실무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재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점을 검토하였음.

2) 2022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장학전형 연구 제언 사항

-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장학전형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운영 현황과 관련된 주요 제언은 총 5가지로 아래와 같음.
 - 1) 지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학전형 별 지급액 통일
 - 2) 전형별 지원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학전형 통합
 - 3) 장학금 신청 시 지원자 편의 증대 및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4) 장학전형 담당 직원 확충
 - 5) 지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학전형의 명칭 명확화
- 기탁자 및 수혜자 설문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시된 제언은 총 5가지로 아래와 같음.
 - 1) 기탁자를 위한 간행물,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 생성
 - 2) 기탁자-수혜자, 기탁자-재단 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진행
 - 3) 다양한 관내, 외 기관과의 협조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재단 홍보 활성화
 - 4) 지원자들 스스로 제출한 장학 신청 서류 실시간 확인 및 부적격 서류 실시간 판별을 위한 신청제도 개편
 - 5) 장학 신청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형별 커트라인 공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조정

- 마지막으로 '시흥형' 장학전형 개발을 위한 1차년도 연구 제언은 총 5가지이며 아래와 같음.
 - 1) 시흥 지역 화폐 '시루'를 활동비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흥 관내 활동 증진으로 애항심 고취를 위한 장기적인 활동 장학전형 개발
 - 2)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기업이 연계된 대외 공모전 등을 진행하는 지역 연계형 장학전형 개발
 - 3) 사진, 요리 등 임상 실적 증빙이 어려운 예·체·기능 분야에 있어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공모전 혹은 경연대회 등을 진행하고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4) 시흥시 청소년-청년 간 정보 교류 및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활동 참여자들에게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시루'를 지급하여 관내 커뮤니티 활성화 증진
 - 5) '시흥형' 장학전형 개발을 위해 '시흥형'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인재상을 마련하고 세대별 맞춤형 장학전형 개발

3) 2022년도 연구결과 반영 및 2023년도 재단 장학전형 변화

- 2022년 1차년도 장학전형 연구에서 제시한 15가지의 제언 중 2023년도에 상당수가 반영되어 지원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1차년도 연구 제언 사항의 반영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2023년 상반기 장학전형 운영에 있어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학전형 별 장학금 지급액과 전형을 통일하였음.
- 각 장학 전형별로 상이한 장학금액 기준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계층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전체 선발이 아닌 경쟁을 통한 선발로 인해 지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실제로 분석결과, 전형별 경쟁률의 편차 발생이 발생하였으며,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형별 금액 기준을 통일화에 관한 제언을 하였음.
- 이는 재단의 장학 전형별 지원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전형별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연구결과 반영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장학생 모집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확인되었음.
- 실제로 경쟁률이 낮거나 혹은 미달이었던 전형들을 통폐합한 이후, 2022년 다자녀 장학생이 모집인원 50명, 경쟁률 6.86:1이었지만, 2023년 다자녀 장학생의 경우 모집인원 180명, 경쟁률(적격기준) 1.74:1로 줄어들어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 2023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활동 장학생 모집 요강

활동장학금	으뜸성장관련자 장학생	시흥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청소년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청소년 종합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활동 * "시흥시청소년재단" 협업사업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고 (신별 일정 및 활동 일정 등)	초·중·고·대	200명	연간 운영 [3월 ~ 12월] [추천] 11월 [지급] 12월 중	◆추천
	인재양성 연구회 연구 장학생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 발굴 및 교육 신순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연구회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생	14명	연간 운영 [2월 ~ 12월]	◆개별신청
	멘토링 활동 장학생	시흥시 청소년들이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다문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시흥시인재양성연구회에서 연구, 기획한 정서 지원 및 진로 적성 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장년/초등학생 초등학생 4학년~6학년	30명/ 60명	연간 운영 [4월 ~ 12월]	◆개별신청

출처: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

- 다만 2022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제언들 중 전형별 커트라인 공개, 기탁자-수혜자, 장학생 간 네트워크 활동 제안 등은 재단 사무국의 현실적인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 역시 다수 존재함.
- 특히 사무국 내에서 해당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변화하고자 노력 중이나,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제언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인력 및 사무국 내의 제도적인 한계들의 경우, 2022년도 연구결과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었던 부분으로 재단 내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알 수 있음.
- 2022년 1차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과 타 재단의 2021년 기준 장학사업 예산 및 장학사업 운영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타 재단 장학사업 예산 대비 장학사업 예산은 크지만, 업무 인원은 적어 장학사업 인력의 과부하가 예상됨(장진명 외, 2022, <표 1> 참조).
- 인력의 과부하는 효과적인 장학사업 운용의 어려움뿐 아니라 연구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을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재단 내 추가적인 인력배치 및 장학팀 편성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

<표 1> 타 재단별 장학 팀 인원 및 장학사업 예산 비교

지역	재단명	전체 재직인원	장학 팀 인원	2021년 기준 장학사업 예산	비고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10	4	625,000,000	반값등록금 포함
인천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6	3	253,101,400	
부천시	부천장학재단	3	1	136,406,920	공무원 근무
수원시	수원시장학재단	4	1	812,047,000	
오산시	오산교육재단	19	1	292,000,000	경영지원팀
시흥시	시흥시인재양성재단	11	1	832,998,500	

출처: 2022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연구보고서

3절 2023년도 장학전형 연구 방향

1) 시흥형 장학전형의 연구 개요

- 앞서 살펴본 1차년도 연구의 제언들을 발전시키고 시흥의 대내외적 특성을 분석하여 2차년도 장학전형 연구는 시흥형 장학전형 개발 및 제언을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흥형 장학전형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1) 예·체·기능 장학 전형, 2) 연구 장학 전형, 3) 활동 장학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예·체·기능 장학 전형

- 먼저 예·체·기능 장학 전형의 경우 기존의 학업 중심 장학전형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 진로를 응원하기 위하여 그 인원을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지원방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기존의 주류 분야가 아닌 기능, 댄스, 공연예술, 비인기 체육 종목 등의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인된 대회 수가 적고 수상실적을 증빙하기에도 어려움이 상당수 존재함.
- 따라서 해당 분야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전시회, 공모전 등의 분야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성 있으며, 현재 재단 내 장학전형 선발기준에 대한 보완하고자 함.

3) 연구 장학 전형

- 연구 장학은 2022년 1차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설립 이후 현재 2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인 전형임.
-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과 시흥의 발전 방향을 제고하고 나아가 석사급 이상의 전문연구인력들이 재단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제언들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됨.
- 이는 현재 시흥시청 내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과는 상이한 것으로 청년정책협의체는 만 19세~34세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임.

- 하지만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는 일반 청년이 아닌 전문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시흥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제언들을 제시하며 동시에 재단의 장학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설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부분에서 존재의 의의가 있음.
- 이는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바로 본 연구회의 목적은 지역 안에서 연구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고 인재양성사업·교육지원사업·평생학습 진흥·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지역 현안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음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 따라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연구 사업 일환인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시에 전문 연구 인력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시흥시의 청년 정책협의체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함.
- 나아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재단의 명칭에서 나타나듯 단순히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 즉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장학금 지급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인재와 인재상을 발굴하고 그들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재단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 과정에서 연구회는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언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4) 활동 장학 전형

- 활동 장학 전형은 인재양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최근 관심이 대두되는 ESG와 방향성이 유사한 전형으로 볼 수 있음.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지역의 인재와 장학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활동 장학전형의 일환으로 ESG활동 장학을 제안하고자 함.

5) 2023 장학전형 연구보고서 개요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흥형 장학전형은 궁극적으로는 시흥형 활동 장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단이 시흥형 활동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사후적인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상을 직접 제안하고 발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 됨.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장은 1차년도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 장학전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
 - 2장은 2023년도 장학전형 현황분석으로 2023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3장은 예체능 장학전형 보완 방향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재단에서 시행되는 예-체능 장학전형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타 재단과의 비교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예체능 장학전형의 개선 방향성을 분석함.
 - 4장은 활동 장학전형에 관하여 활동 장학전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타 재단의 활동 장학전형, 관내외의 다양한 조건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 장학 ESG 장학전형에 대해 제안하였음.
 - 5장은 결론으로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연구회 장학전형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최종적인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장 2023년 장학전형 현황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재단 내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조사는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부분에 매우 유용하며,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장학 수혜자의 다양한 니즈와 평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게 획일화된 질문과 문항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장학생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명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깊은 장학 운영 실태 조사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1절 2023년도 장학전형 설문 조사

1) 조사대상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수혜자 중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과 같음.
- 상반기 수혜자 중 총 501명이 응답하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321명(64.07%), ‘남성’이 180명(35.93%)으로 응답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응답자의 나이대는 ‘20대’가 344명(68.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가 150명(29.94%), ‘30대’가 2명(0.40%), ‘40대’의 경우 5명(1.00%)으로 20대와 1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학생의 직업으로는 ‘대학생’이 358명(71.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88명(17.56%), ‘중학생’은 54명(10.78%)로 나타났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1명(0.20%)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반기 정규장학생의 선발기준이 중학생(14살)부터 대학생까지 이기에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장학생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정왕동’이 132명(26.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곧동’이 68명(13.57%)으로 높게 나타났음. ‘은행동’은 53명(10.58%), ‘장곡동’은

50명(9.98%)으로 나타났고, ‘대야동’은 39명(7.78%), ‘능곡동’은 34명(6.79%), ‘신천동’ 32명(6.39%), ‘연성동’ 29명(5.79%) 으로 나타났음.

- ‘목감동’의 경우 20명(3.99%), ‘군자동’ 15명(2.99%), ‘매화동’ 10명(2.00%), ‘월곡동’ 9명(1.80%), ‘신현동’ 8명(1.60%), ‘거북섬동 2명(0.40%)로 지역별로 수혜 인원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 일반적 특성

N(%) = 501(100%)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여자	321	64.07
	남자	180	35.93
연령	10대	150	29.94
	20대	344	68.66
	30대	2	0.40
	40대	5	1.00
직업	중학생	54	10.78
	고등학생	88	17.56
	대학생	358	71.46
	직장인	1	0.20
거주지역	정왕동	132	26.35
	배곧동	68	13.57
	은행동	53	10.58
	장곡동	50	9.98
	대야동	39	7.78
	능곡동	34	6.79
	신천동	32	6.39
	연성동	29	5.79
	목감동	20	3.99
	군자동	15	2.99
	매화동	10	2.00
	월곡동	9	1.80
	신현동	8	1.60
	거북섬동	2	0.40

2) 조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연구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효과성과 장학전형에 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 기간 및 설문조사 방식은 아래와 같음.

- 설문조사 대상: 2023년 상반기 장학전형 수혜대상
- 설문조사 기간: 2023년 7월 18일~23일 (약 1주간 진행)
- 설문조사 참여방식: Google Docs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
- 설문조사 홍보방식: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수혜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홍보

3) 문항 구성체계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문항 구성체계는 인구학적 배경, 장학전형 신청 항목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3>과 같음.

<표 3> 문항 구성체계

구분	문항 수
I. 인구학적 배경	4문항(1, 2, 3, 4)
II. 장학생 선발 관련 전형 사항	9문항(5, 7, 7-1, 7-2, 7-3, 7-4, 8, 10, 12)
III. 장학금 수혜 만족도	3문항(11, 13, 14)
IV. 장학전형 홍보만족도	2문항(6, 9)

2절 설문조사 결과

- 2023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자 중 총 501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함. 아래의 <표 4>의 장학전형 신청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함(다자녀)전형, 우수인재전형, 다함(희망)전형, 다함(소상공인자녀)전형, 다함(산업단지채직자자녀)전형, 다함(지역인재)전형, 시흥사랑전형으로 총 7개의 전형으로 선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 중 각 전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함(다자녀)’의 경우 141명(2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우수인재’가 132명(26.35%)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함(희망)’이 117명(23.35%), ‘다함(소상공인자녀)’은 51명(10.18%)로, ‘다함(산업단지채직자자녀)’은 30명(5.99%)로 나타났으며, ‘다함(지역인재)’가 22명(4.39%), ‘시흥사랑’이 8명(1.60%)로 나타남.
- 장학금 신청 이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298명(59.48%)으로, ‘그렇지 않다’가 203명(40.52%)으로 신청 이전에도 알고 있던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다’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아 개선이 많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 장학전형 신청현황

		N (%) = 501(100%)	
구분		빈도(N)	백분율(%)
2023년 상반기 장학전형 신청현황	다함(다자녀)전형	141	28.14
	우수인재전형	132	26.35
	다함(희망)전형	117	23.35
	다함(소상공인자녀)전형	51	10.18
	다함(산업단지채직자자녀)전형	30	5.99
	다함(지역인재)전형	22	4.39
	시흥사랑	8	1.60
장학금 신청 이전	그렇다	298	59.48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인지 여부	그렇지 않다	203	40.52

- 다음으로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종류 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아래의 <표 5>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매우 그렇다’ 375명(74.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121명(24.15%), ‘그렇지 않다’가 4명(0.80%),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명(0.2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현재 개편된 장학전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함.
- 신설되었으면 하는 장학전형에 대한 응답으로는 ‘해외 유학 장학금’ 103명(20.56%), ‘취업연계형 장학금’ 103명(20.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 장학금’ 92명

- (18.36%), ‘대학원 장학생’ 69명(13.77%),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61명(12.18%), ‘현장실습 장학금’ 54명(10.78%), ‘AI데이터 관련 장학금’ 19명(3.79%)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을 기반으로 한 장학전형에 그치 것이 아닌 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 관한 장학전형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숙사 장학금은 대학교에 기숙사 부족 문제 및 월세 부담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지원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단의 “활동성 장학생(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시 참여 여부”에 대해 ‘미참여’가 343명(68.46%)로 ‘참여’ 158명(31.5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비록 미참여 응답이 참여 응답보다 높게 나왔으나,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158명으로 적지 않은 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활동성 장학전형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충분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판단됨. 그러나 확실적인 서포터즈라는 활동성 장학전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성 장학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에 따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유에 대해 ‘홍보 부족’ 203명(40.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학금 신청 시스템 개선’ 96명(19.16%), ‘선발인원 부족’ 96명(19.16%), ‘홈페이지 개편’ 84명(16.77%), ‘선발기준 변경’ 22명(4.39%)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작년도 연구를 포함하여 홍보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홍보 문제 및 장학금 신청 시스템 개선 여부는 현재 보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관련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점수 향상’이 232명(46.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적 비중 향상’ 90명(17.9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완화’, 84명(16.77%), ‘접수 기간 조정’, 56명(11.18%), ‘봉사활동 점수 추가’, 39명(7.7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장학생 선발기준과 직접 관련된 요인은 재단이 일정 부분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무조건적인 수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간 조정은 2022년도 연구보고서에도 보완점으로 언급되었으나, 재단 인력 부족 및 예산안 운영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단 내 성적 반영 기준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의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그렇다’가 256명(51.10%), ‘매우 그렇다’가 233명(46.51%)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10명(2.00%), ‘매우 그렇지 않다’가 2명(0.40%)으로 나타났다. 성적 반영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음.

<표 5> 장학전형 만족도

		N(%) = 501 (100%)	
		빈도(N)	백분율(%)
장학전형 종류 만족도	구분		
	매우 그렇다	375	74.85
	그렇다	121	24.15
	그렇지 않다	4	0.80
개편 및 신설 되었으면 하는 장학전형	매우 그렇지 않다	1	0.20
	해외 유학 장학금	103	20.56
	취업연계형 장학금	103	20.56
	기숙사 장학금	92	18.36
	대학원 장학생	69	13.77
	현장실습 장학금	54	10.78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61	12.18
활동성 장학생(서포터즈) 참여 의사	AI데이터 관련 장학금	19	3.79
	미참여	343	68.46
장학금제도 개선사항	참여	158	31.54
	홍보부족	203	40.52
	장학금 신청 시스템 개선	96	19.16
	선발인원 부족	96	19.16
	홈페이지 개편	84	16.77
	선발기준 변경	22	4.39
장학생 선발 부분에서 추가 및 보안점	거주기간 점수 향상	232	46.31
	성적 비중 향상	90	17.9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 간 완화	84	16.77
	접수기간 조정	56	11.18
	봉사활동 점수 추가	39	7.78
	매우 그렇다	233	46.51
성적기준에 대한 만족도	그렇다	256	46.51
	그렇지 않다	10	2.00
	매우 그렇지 않다	2	0.40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과 관련된 재단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응답으로는 <표 6>으로 나타낼 수 있음. ‘친구, 지인’이 263명(52.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재단 홈페이지가’ 92명(18.36%)으로 높게 나타남. ‘리플릿, 홍보물’은 72명(14.37%), ‘한국장학재단’은 22명(4.39%), ‘블로그’는 18명(3.59%),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는 15명(2.99%), ‘카카오톡’은 11명(2.20%), ‘인스타그램’은 8명(1.60%)으로 나타남.
- ‘친구, 지인’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포터즈 활동 강화 및 장학전형 수혜자들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다른 홍보 방안들도 더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6> 재단 정보습득의 방법

<i>N</i> (%) = 501 (100%)			
구분	빈도(<i>N</i>)	백분율(%)	
재단 정보 습득 방법	친구, 지인	263	52.50
	재단 홈페이지	92	18.36
	리플릿, 홍보물	72	14.37
	한국장학재단	22	4.39
	블로그	18	3.59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15	2.99
	카카오톡	11	2.20
	인스타그램	8	1.60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내 장학전형 선발인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7>에서 보여지듯이 ‘그렇다’가 286명(57.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204명(40.72%), ‘그렇지 않다’가 11명(2.20%)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장학전형 선발인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절성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주관식 응답을 받음으로써 추가 보완점의 방향성을 고안하고자 하였음.
-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보면 지원 확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응답한 부분을 통해, 기존 장학전형 선발 이외에도 긴급 장학전형 선발 시스템 도입 등에 관한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부분은 2022년 장학전형 연구에서 기탁자들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임.

<표 7> 장학전형 선발인원 적절성

<i>N</i> (%) = 501 (100%)			
구분	빈도(<i>N</i>)	백분율(%)	
장학전형 선발인원 적절성	매우 그렇다	204	40.72
	그렇다	286	57.09
	그렇지않다	11	2.20
위 항목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되길 바랍니다!		
	시흥시 거주기간을 높여야 합니다. 잠시 들리면서 받으면 장학금을 받고 떠나기 때문.		
	다자녀의 경우 기준이 적합하면 다수로 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지원받길 원합니다.		

- 장학생의 장학금 선발 기간에 대한 적절성은 <표 8>에서 보여지듯이 ‘그렇다’가 489명 (97.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12명(2.4%)으로 나타남.
- 장학전형에 선발 기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는 시기가 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학금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 신청 접수 후 선발하여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러한 의견들은 대부분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재단은 선발 기간 내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존재함.

<표 8> 장학전형 선발 기간 적절성

		<i>N(%) = 501(100%)</i>	
구분		빈도(N)	백분율(%)
장학전형 선발 기간 적절성	그렇다	489	97.6
	그렇지 않다	12	2.4
위 항목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p>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기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시기를 더 앞당겨 장학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무 긴 기간동안 진행되어 서류 추가제출이나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림. 더 많은 학생이 받길 희망합니다. 시흥시 거주자 우선 접수가 높아야 장학금만 받고 떠나지 않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시점에서 꾸준히 정확한 날짜로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려면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 선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합니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발이나 지급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 장학금 신청 시에 서류접수와 신청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음. ‘매우 그렇다’ 232명 (46.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221명(44.11%), ‘그렇지 않다’가 45명(8.98%), ‘매우 그렇지 않다’ 3명(0.60%)의 순으로 나타남.
- 장학전형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앱으로 인한 간소화와 서류접수 제출 도움, 결과안내 팩스 접수 등으로 보여짐.
- 현 재단은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에 따른 보완을 위해 지속해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개선 중이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은 추후 보완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전담센터에 관한 부분은 상기하였듯이 인력에 대한 문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9> 장학전형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의 적절성

		<i>N(%) = 501(100%)</i>	
구분		빈도(<i>N</i>)	백분율(%)
장학전형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의 적절성	매우 그렇다	232	46.31
	그렇다	221	44.11
	그렇지 않다	45	8.98
	매우 그렇지 않다	3	0.60
위 항목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앱을 통한 간편 접수		
	서류접수 결과안내		
	서류 제출 및 신청을 도와줄 전담센터 필요		
	팩스 서류접수 추가		

- 장학금을 활용 용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적 구매’는 192명(21.12%), ‘학원 등록비’ 191명(21.01%), ‘등록금 납부’ 152명(16.72%), ‘인터넷 강의’가 152명(16.72%), ‘교통비’ 69명(7.59%), ‘식비’60명(6.60%), ‘주거비’39명(4.29%), ‘생활용품 구입’23명(2.53%), ‘문화생활비’23명(2.53%), ‘의료비’8명(0.88%) 순으로 나타남.
- ‘서적 구매’ 및 ‘학원 등록비’, ‘인터넷 강의’ 등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재단의 목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수혜용도에 대한 설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아닌 단순 응답에 의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혹은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함.

<표 10> 장학금 수혜용도

			<i>N(%) = 501(100%)</i>	
	구분	빈도(N)	백분율(%)	
장학금 수혜용도	서적 구매	192	21.12	
	학원 등록비	191	21.01	
	등록금 납부	152	16.72	
	인터넷강의	152	16.72	
	교통비	69	7.59	
	식비	60	6.60	
	주거비	39	4.29	
	생활용품 구입	23	2.53	
	문화생활비	23	2.53	
	의료비	8	0.88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425명(84.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 75명(14.97%), '매우 그렇지 않다' 1명(0.20%)으로 나타남.

<표 11> 장학금 유용성

			<i>N(%) = 501(100%)</i>	
	구분	빈도(N)	백분율(%)	
장학금 유용성	매우 그렇다	425	84.83	
	그렇다	75	14.97	
	매우 그렇지 않다	1	0.20	

3절 설문조사 시사점

- 먼저 2022년도 대비 2023년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전형과 관련하여 연구회에서 제언하고 실제로 변경된 장학전형 운영방안(장학 전형별 장학금 액수 통일화 및 통합), 서류접수, 신청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장학전형 운영 개선 현황 관련 시사점

- 신설되었으면 하는 장학전형과 관련하여 ‘해외 유학 장학금’, ‘취업연계형 장학금’, ‘대학원 장학생’, ‘현장실습 장학금’ 등 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인 활동성 장학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취업 연계 장학전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이 있으나, 재학생 대상으로 휴학이나 취업 준비생에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최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에게도 사용계획서를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전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 장학금이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전형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단의 장학제도가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 및 대상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숙사 장학금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대학교 내 기숙사 부족 및 월세 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활동성 장학전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 재단에서 운영 중인 활동성 장학전형인 ‘서포터즈’ 지원 희망 여부에 관해선 비희망이 희망 여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원 희망의 비중은 31.54%로 유의미한 응답이나, 지원 희망자들이 실제로 활동 장학전형을 신청하고 활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확실적인 서포터즈 활동 이외에도 취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공-진로 관련 다양한 활동성 장학전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장학전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홍보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홍보 문제 및 장학금 신청 시스템 개선 여부는 현재 보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단 내 성적 반영 기준은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도 주요 개선점 중 제출 서류 신청과정 개선은 긍정적인 답변이 90.42%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대비 26.1%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관련 보완할 부분에 대한 항목에서 ‘거주기간 점수 향상’ (46.31%), ‘성적 비중 향상’ (17.9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완화’ (16.77%), ‘접수 기간 조정’ (11.18%), ‘봉사활동 점수 추가’ (7.78%)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장학생 선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발기준은 재단이 이러한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지원자들 간의 형평성, 장학생 선발 시 요구되는 서류의 공신력을 비롯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사무국 내 장학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내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자들이 요구하는 선발기준의 추가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인재양성재단 인식 및 홍보 방안 관련 시사점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전 인식과 관련된 질문에서 59.48%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40.52%는 인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여전히 홍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기존의 재단이 주로 활용하는 홍보 채널인 카카오톡 채널,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는 기존에 재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우므로 관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약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음.
- 홍보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재단 정보습득 경로에 관한 응답을 살펴보면 ‘친구, 지인’이 52.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재단 홈페이지’가 (18.36%)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곧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추후에도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함. 따라서 서포터즈 활동 강화 및 장학전형 수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른 홍보 방안들도 더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활동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재양성재단 홍보를 위한 친구 소개 프로젝트나 인재양성재단 SNS 공유 혹은 태그로 장학재단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용 분 아니라 학부모 및 일반 시민들 역시 재단의 장학 및 다양한 사업 정보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역시 필요함.
-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획득 창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흥시청 SNS, 다른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재단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달창구 개설에 대한 고민 역시 요구됨.

3) 장학전형 선발인원 및 기간, 선발 운영 관련 시사점

- 선발 기간에 대한 적절성은 9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4%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선발 기간 조정은 상기한 장학제도 개선에서도 11.8%일 정도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선발 기간 조정은 2022년도 연구보고서에도 언급되었으나, 재단 인력 부족 및 예산안 운영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완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인력 확보 등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장학전형 선발인원에 대한 응답에서 부정적인 답변은 2.20%로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의 주관식 응답을 살펴보면, '더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재양성재단의 모토에서도 고려할 요소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이 지원하는 다함(다자녀), 우수인재, 다함(희망)전형의 경우 각각 20여명의 학생들이 선발인원 부족을 개선으로 꼽음. 이는 기존의 개편된 장학전형에서도 추가로 재단의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특정 부문의 선발인원의 확대, 축소하는 전략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기 장학전형 선발 이외에도 긴급 장학전형 선발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하며, 해당 부분은 2022년 장학전형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기탁자 의견과 동일한 부분임.
-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타 장학재단보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장학전형 담당자가 1명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에 대한 요소가 존재함.
- 특히 설문조사 내 요구사항에서도 장학금을 신청해서 수혜하는 기간까지에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잘못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장학금 대상자에서 미달로 떨어져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음.
- 하지만 위와 같은 지원자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미비 서류에 대한 지원자 책임은 다른 재단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서류 오제출에 대한 확인 및 개별안내는 사무국 인력 과부하,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선발서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제공하고 제출 후 제출 서류 확인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모든 접수 지원자에게 전송하여 지원자가 자신의 서류를 중복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 하지만 종합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지원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창구 개설과 홍보 채널의 다양화, 서류 제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에 대한 지원자들의 니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내 장학사업 인력의 확충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3장 예체능 장학전형 보완 방향 수립

1절 예체능 전형 보완 필요성

- 현 시흥인재양성재단의 장학전형 중 예체능 관련 장학 현황을 살펴보면 타 전형과 비교하였을 때 지원자 수가 현저히 낮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상반기/하반기 장학생 선발심사 결과에 따르면 꿈트리장학생(예/체/기능)의 경쟁률은 중(1.90:1), 고(0.47:1), 대(0.27:1)로 경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합계 0.59:1의 경쟁률로 70명 모집 중 41명 지원 및 29명이 선발됨.
- 이러한 낮은 경쟁률의 주요 원인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파악되었음.
- 먼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꿈트리 장학전형 지원 자격을 보면 1) 시흥시 1년 이상 거주, 2) 도 대회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이며, 위와 같은 제도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함
 - (1) 체계적인 경기제도가 있는 분야만 유리함. 대체적으로 대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체능에 비해 예능과 기능은 연중 대회가 적거나 없는 분야가 존재함.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음.
 - (2) 승인 대회와 미승인 대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훈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선 순위선발과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함.

1) 예·체·기능 대회 및 공모전 수

<표 12> 2022년 체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대회 및 공모전			
분야	종목 및 전공	구분	대회 수(약)
체능	육상	대회	51
	태권도	대회	72
	수영	대회	34
	배드민턴	대회	35
	탁구	대회	44
	골프	대회	9+@
	무용	대회	14
	경쟁률		
최소 4강 이상(4명 미만은 실적 인정 X)			
기타			
종목별로 매우 상이			

<표 13> 2022년 예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대회 및 공모전			
분야	종목 및 전공	구분	대회 수(약)
예능	연간 주요 콩쿨	콩쿨	79
	미술	대전	30+@
	예능 종합 콩쿨	콩쿨	61
	영상/UCC/사진	공모	213
	문학/글/시나리오	공모	175
경쟁률			
대부분 비공개			
기타			
지원자 대략 300명대 / 대부분 비공개 / 공모전마다 매우 상이			

<표 14> 2022년 기능 부분 대회 및 공모전 수

대회 및 공모전			
분야	종목 및 전공	구분	대회 수(약)
기능	기능경기대회	기능대회	4
경쟁률			
대부분 비공개			
기타			
금 / 은 /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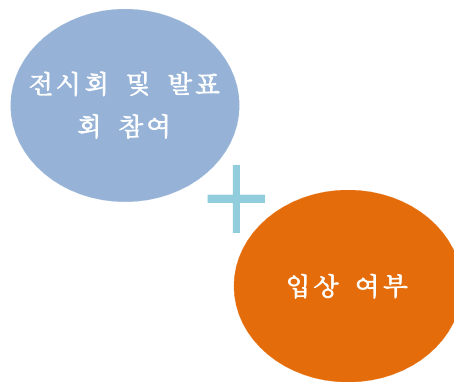
- 둘째, 전형에 따른 안내사항을 보면, 예체능 분야에 맞지 않는 용어들이 혼재되어있어 지원 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셋째, 장학금 관련 정보가 미흡함. 장학금 관련 홍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나 학교에서도 가능하지만, 예체능은 타 전공 대비 사교육이 많다 보니 비교적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적은 예체능 학생들은 접할 기회가 적음.
- 또한 타 전공과는 다르게 장학금 전형이 한정적임. 그렇기에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형 확대가 필요함.

2) 예능·기능 분야 참여방식 확대

<표 15> 예술·산업기능 분야 기준 확대 전

구분	대회 내용
대회 주최	전국 / 도 단위
대회 규모 (훈격)	장관·지사 / 도교육감 / 도단위 협회장 / 대학총장
시상 대상	대상(장원) / 금상·은상(최우수상, 우수상) / 동상(특선)
참가 방식	개인 / 단체
재단에서 기존에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우선 / 수상실적 필수 / 동점일 경우-상 개수	

<그림 3> 예술·산업기능 분야 기준 확대 후



- ▶ 예술, 기능 계열에 맞는 대회 기준 명확화 및 확장 방안 고려 필요
- ▶ 전시회 및 발표회 참여와 입상 여부로 장학생 선정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체능 분야에 걸맞게 관련 용어 수정 및 평가 배점 세분화, 기존의 예/체/기능 장학전형 제도적 개선을 위해 타 지역의 장학 전형 조사, 현 예체능 종사자의 의견을 수집하였음.
- 이러한 종사자의 의견은 예체능 장학전형은 수혜자가 적어 분석이 극히 제한되므로,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절 기존 예체능 장학전형 용어 수정 및 평가 배점 세분화

- 기존의 인재양성재단에서 예체능 장학전형에서 활용된 용어들은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음.
- 이러한 용어들은 재단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구분 표기를 더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용어 부분 수정 이외에도 및 참가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 수정 및 참가방식은 실제 2023년 장학전형 선발 시 활용되었으며, 비교를 위해 수정 전후를 함께 작성하였음. 또한 이해를 위해 주요 변경 점은 하단에 따로 구별하여 표기하였음.

1) 체육 분야 용어 수정

<표 16> 체육 분야 용어 수정 전

구분	대회 내용
대회 주최	전국체전 / 전국대회 / 도 대회
대회 규모 (훈격)	세계대회 / 전국대회 / 도 대회
시상 대상	우승 / 준우승 / 3위
참가 방식	개인 / 단체
재단에서 기존에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우선 / 수상실적 필수 /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표 17> 체육 분야 용어 수정 후

구분	대회 내용
대회 주최	세계연맹 / 대한체육회 / 각 종목 협회 및 연맹 / 도 협회
대회 규모 (훈격)	세계대회 / 전국대회 / 도 대회
시상 대상	1위 / 2위 / 3위
참가 방식	개인 / 단체 / 복식
재단에서 기존에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우선 / 수상실적 필수 /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 ▶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는 단체로, 구분 표기에 따라 더 적합한 표기로 사용함
- ▶ 시상 순위는 통일성을 위해 1~3위로 통일함
- ▶ 스포츠 종목은 흔히 ‘개인/복식/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복식’을 추가함

2) 예·체·기능 평가배점표 세분화

<표 18> 평가배점표 세분화 수정 전

구분	개인			단체		
시상	대상, 우승	금·은, 준우승	동상, 3위	대상, 우승	금·은, 준우승	동상, 3위
점수	50	40	30	45	35	25

지원자의 실적 총점이 더 높은 순

※재능 또는 꿈트리 장학금을 수혜한 동일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능평가의 보조자료로 활용.

<표 19> 평가배점표 세분화 수정 후

구분	개인				단체			
시상	대상, 1위	금상, 2위	은상, 3위	동상	대상, 1위	금상, 2위	은상, 3위	동상
점수	50	40	30	20	35	25	20	15

지원자의 실적 총점이 더 높은 순

※재능 또는 꿈트리 장학금을 수혜한 동일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능평가의 보조자료로 활용.

▶ 수상 동기를 위해 금상과 은상 혜택 구분이 필요

- 개인전과 단체전 및 복식전 간의 점수 폭 확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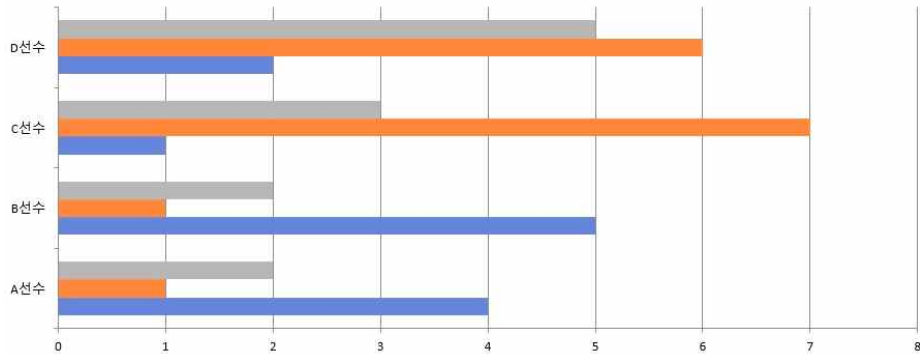
▶ 실적에 따른 선발 종류

- 세분화 점수
- 통합 실적
- 메달 실적

▶ 실적에 따른 선발 종류에서 평가배점표를 세분화한 이유

- 합산 점수에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
- 활동 지향성 장학 형태를 보일 수 있음.

<그림 4> 입상실적 예시



- 선수들의 입상실적을 금/은/동으로 정리해보면 A선수: 4/1/2 7개, B선수: 5/1/2 8개, C선수: 1/7/3 11개, D선수: 2/6/5 13개로 정리할 수 있음.
- <그림 4>를 보았을 때, 우선 선발될 선수가 누구일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금메달이 많은 선수가 우선선발이 되어야 통상적임. 이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우선시하는 방식임.
- 그러나 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특별전형을 따로 배치하여 우수선수 선발 예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의 인재양성재단 선발 배점표를 보면 등위에 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며, 점수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인재를 발굴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등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점수를 더욱 세분화시켜 입상실적을 합산하였을 때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게 수정이 필요함.

3) 예·체·기능 평가방식 제언

- 본 방법의 채택 이전에 본 연구팀은 총 3가지의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아래와 같음.
 - 1) 세분화 점수
 - 2) 통합 실적
 - 3) 메달 실적
- 3가지 방식에는 각각의 근거가 있으며 아래와 같음
 - 근거 1) (1) 활동 지향성 장학 형태 / (2) 합산 점수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 근거 2) 대학교 입학 인정 입상실적
 - 근거 3) 대회 등급 상관없이 입상 횟수로 통일화

- 입상실적 예시인 <그림 4>를 활용하였을 때, 금메달 우선 선발을 목적으로 하면 B선수가 가장 우선 선발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본 연구팀이 제안한 3가지 방식에 따르면 선발자가 변경되며, 이에 관한 결과 및 예시는 아래와 같음.

4) 예·체·기능 평가방식 예시

- 첫 번째로 ‘세분화’ 방식으로 순위를 정할 경우, B>A>D>C에서 개인전 기준으로 D>C>B>A 순서로 변동됨.
- 해당 방식에서는 금메달 수 보다는 누가 더 많은 활동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었음. 단 본 예시에서는 전국대회 개인전을 한정하여 설명을 했으므로 복식 및 단체전, 도 단위의 요소가 추가되면 또 다른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성이 존재함.

<표 20> 세분화 점수 예시

구분	실적	배점	비고
개인	전국대회 이상 1위	30	입상실적 증빙 가능 실적만 인정
	전국대회 이상 2위	25	
	전국대회 이상 3위	20	
	도 단위 1위	10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대표선발전 +1점
	도 단위 2위	5	
	도 단위 3위	3	
복식 및 단체	전국대회 이상 1위	20	입상실적 증빙 가능 실적만 인정
	전국대회 이상 2위	15	
	전국대회 이상 3위	10	
	도 단위 1위	7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대표선발전 +1점
	도 단위 2위	5	
	도 단위 3위	3	

*현 국가대표 선수일 경우 합산 점수 상관없이 우선선발
 **전 국가대표 선수일 경우 동점 상황에서 우선선발

- 두 번째로 ‘통합 실적 순위’이며, 해당 방식은 대학교 입학에서 활용하는 방식임.
- 해당 방식으로 순위를 정할 경우, B>A>D>C 순으로 우선 선발됨.

<표 21> 통합 실적 예시

구분	등급	기준	배점
입상실적	1등급	현 국가대표 or 세계선수권 입상자 이상	10점
	2등급	전 국가대표 or 개인 금 3개 이상	9점
	3등급	개인 금 2개 + 복식 금 1개 + 단체 금 1개	8점
	4등급	개인 금 2개 이상	7점
	5등급	개인 금 1개 + 복식 금 1개 + 단체 금 1개	6점

6등급	개인 금 1개 이상	5점
7등급	개인 은 1개 + 복식 금 1개 + 단체 금 1개	4점
8등급	개인 은 1개 + 복식 or 단체 금 1개	3점
9등급	개인 은 1개 이상	2점
10등급	개인 동 1개 이상	1점

동점일 시 금/은/동 개수 많은 순위로 선정

- 마지막 세 번째는 '메달 실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임.
- 본 방식은 종목 상관없이 메달 색만을 보며 금메달을 우선으로 함.
- 해당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B>A>D>C 순으로 우선 선발이 됨.

<표 22> 메달 실적 예시

구분	등급	기준	배점	비고
입상실적	1등급	금 3개 이상	10	해당 기준으로 택1
	2등급	금 2개 + 은 1개 이상	9	
	3등급	금 2개 이상	8	
	4등급	금 1개 + 은 1개 이상	7	
	5등급	금 1개 이상	6	
	6등급	은 2개 이상	5	
	7등급	은 1개 + 동 1개 이상	4	
	8등급	은 1개 이상	3	
	9등급	동 2개 이상	2	
	10등급	동 1개 이상	1	

동점일 시

1. 現/前 국가대표 선수 우선 선발
2. 개인전 금/은/동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

- 최종적으로 본 연구팀이 채택한 방식은 '세분화'이며 그 근거로는 (1) 활동지향성 장학 형태 / (2) 합산 점수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이기 때문임.
- 해당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담당자와 소통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실제 장학전형에 활용하기로 하였음.

3절 타 재단 대비 예체능 장학전형 현황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시흥인재양성재단 예체능 장학제도에 대한 추가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 타 재단 예체능 장학전형 현황을 조사하였음.
- 비교 분석결과, 대부분의 재단에서 수상실적을 필요로 하였으며 서울시만이 학교장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서울시의 장학전형 목표가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타 재단들은 실기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음.
- 현 시흥인재양성재단의 목표는 인재양성이므로, 예체능 장학제도에 관련한 지원요건에 대한 문제점과 용어 수립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함.
- 자세한 비교 분석을 위해 타 재단의 장학 현황을 하나씩 분리하여 아래에 표기하였음.

<표 23> 서울시 예체능 장학제도

서울시	
재단명	서울장학재단
장학금명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선발대상	저소득층 예체능 특기가 있는 고등학생
선발인원	180명
장학금	연 300만 원
선발자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미술, 체육, 무용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 - 저소득예체능 특기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표 24> 수원시 예체능 장학제도

수원시	
재단명	수원시장학재단
장학금명	특기장학금
선발대상	고등학생
선발인원	3명
장학금	연간 50만 원
선발자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 수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술, 음악, 체육, 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수원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예술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신청 가능)

<표 25> 부천시 예체능 장학제도

부천시	
재단명	부천장학재단
장학금명	예체능
선발대상	고등학생, 전문대생, 일반대생, 사이버대생, 방송통신대생
선발인원	미정
장학금	고등학생 : 30만 원 전문대생 : 250만 원 일반대생 : 300만 원 사이버대생: 120만 원 방송통신대생: 40만 원 ※ 2회(5월, 10월) 50%씩 분할지급
선발자격 및 기준	-대회의 규모·주체, 시상대상 및 참가방식 등에 따른 수상실적으로 최근 2년 이내(2021년~2022년) 정부 기관 또는 시·도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수상실적이 있는 학생

<표 26> 안산시 예체능 장학제도

안산시	
재단명	인재육성재단
장학금명	문화, 예술, 체육, 기능장학금
선발대상	안산시 거주 초중고
선발인원	각20 명(팀)
장학금	1인(팀)당 100만 원
선발자격 및 기준	-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공고일 기준 2년간 중앙부처, 시·도, 시·도 교육감, 시·군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의 대회에서 입상순서 기준으로 전국단위 3위 이상, 도 단위 3위 이상, 시 단위 1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팀)

<표 27> 인천광역시 예체능 장학제도

인천광역시	
재단명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명	재능인장학금
선발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인원	10명
장학금	고등학생 : 연 200만 원 대학생 : 연 400만 원
선발자격 및 기준	- 인문·사회·수학·과학·문화예술, 체육, 기술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및 국내 전국단위 이상 대회 개인 분야 3위 이내 (단체는 1위에 한함)의 성적을 득한 자

4절 예체능 장학전형 현직 인터뷰

- 본 연구의 중립성과 예·체·기능 장학금의 필요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직으로 활동 중인 5인의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 질문은 자기소개를 제외하고 총 2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하였음. 이중 계속 장학금은 현재 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 중인 장학전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음.
 - (1) 장학전형과 장학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2) 계속장학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5명의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현재 석사과정 이상으로 자신의 분야(태권도, 발레, 골프, 농구, 현대무용)에서 현직으로 임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함.
-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을 받은 참여자도 있고 받은 적이 없는 참여자도 있었음. 또한 장학금의 출처가 다양하였으며 금액도 차이가 존재하였음.
- 특이점은 예·체·기능 분야에서 장학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많은 대답이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장학전형의 홍보를 지적함.
- 따라서 본 장학연구팀에서는 예·체·기능 분야별 사람들에게 알맞은 홍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선 홍보가 부족했던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터뷰의 자세한 내용은 문항 및 개별 답안으로 표기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답안 하단에는 요약문을 기재하였음.

1) 장학전형과 장학금 관련 인터뷰

1. 자기 전공 소개

- ▶ 태권도: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 박사학위”
- ▶ 발레: “경희대학교 발레전공 석사과정”
- ▶ 골프: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석사과정, 한라대학교 골프 수업 겸임 교수”
- ▶ 농구: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마케팅 석사과정”
- ▶ 현대무용: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학부,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며 무용수로 활동.”

2. 이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으신 경험이 있나요?

- ▶ 태권도: “제 분야에서는 따로 없고 그냥 학교 차원에서 받은 연구장학금이 전부”
- ▶ 발레: “대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음.”
- ▶ 골프: “전공이 골프인데 관련 장학금은 받지 못함.”
- ▶ 농구: “대학교에서 운동선수장학금을 받았고 초, 중학생 때 협회 우수선수 장학금을 받음.”
- ▶ 현대무용: “한양대 정몽주 장학금 외에 무용 장학금은 없음.”

- 대부분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부분은 예체능 장학전형의 개발 및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현재까지도 자신이 속한 예체능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 ▶ 태권도: “현재는 없음”
- ▶ 발레: “제가 속한 분야에서 계속 받지는 않음.”
- ▶ 골프: “없음.”
- ▶ 농구: “현재 받지 않음.”
- ▶ 현대무용: “없음.”

-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이 속한 예체능 분야에서는 모두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음

4. 만약 받고 있다면 해당 장학금은 어느 기관/단체로부터 받고 있나요?

- ▶ 태권도: “현재는 없음”
- ▶ 발레: “과거에는 학교기관으로 받았고 현재는 없음.”
- ▶ 골프: “없음.”
- ▶ 농구: “현재 없음”
- ▶ 현대무용: “없다”

- 과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발레로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예체능 분야는 성인/일반부 부문에서 지원이 현저히 적음을 예상할 수 있음.

5. 전체 예체능 분야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태권도: “현재 체육전공에서는 너무 한정적이며 경기력 위주로만 장학금을 주는 것”
- ▶ 발레: “실기 실력이 주로 많이 포함된 것 같음.”
- ▶ 골프: “경기실적”
- ▶ 농구: “실기적인 실력이 출중한 선수, 두 번째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동선수 생활 지속이나 물품 구매가 어려운 학생.”
- ▶ 현대무용: “활동경력인 공연 참가 여부”

- 예체능 장학전형의 대부분이 지원자의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이미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계속 돌아가는 문제점을 말함.

- 또는 소득 분위기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고질적 문제인 경계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예체능 분야에서 장학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 태권도: “절차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정보를 얻기 어렵고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
- ▶ 발레: “경험이 없음.”
- ▶ 골프: “홍보부족.”
- ▶ 농구: “따로 없음.”
- ▶ 현대무용: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교수님 추천서가 힘들.”

- 현재 존재하는 홍보방식이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교수님의 추천서 등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7. 현재까지 장학금을 받았다면 제도적인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 ▶ 태권도: “장학금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기업이나 업체, 재단 이런 곳에서 되게 많을 텐데 뭔가 학생들이 알 기회가 없었고 받았던 사람들만 받았다는 것”
- ▶ 발레: “장학금 선발기준에 대학생까지만 되어있는데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친구들이 많기에 이가 아쉬움. 범위를 넓히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
- ▶ 골프: “예체능 분야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였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했음.”
- ▶ 농구: “신청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대중화되어 있지 않음. 홍보나 접근의 부족.”
- ▶ 현대무용: “부모의 소득 분위가 아닌 예체능에서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따지면 좋겠음.”

- 제도적인 부분만 두고 봤을 때는 장학전형 지원에 있어 제한점을 둔다는 것을 언급하였음.
- 해당 답변 이외에도, 일부는 부모의 재산은 성인으로서는 누리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음.
- 따라서 장학전형 신청 및 선발 시, 부모의 소득 분위와 따로 측정되는 기준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대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홍보가 부족하기에 해마다 혜택을 누리는 자들만 누린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재단에선 주목할 필요성이 존재함.

8. 예체능 계열 장학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 외에 다른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 태권도: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겠고 요즘 세대에 맞게 온라인(sns)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음.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에 카드뉴스 형식의 가독성이 좋은 설명글이 자주, 많이 올라오면 좋겠음.”
- ▶ 발레: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
- ▶ 현대무용: “외국 무용이다 보니 외국 유학을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도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연습실을 대여하는 거나 그 공연 공간을 대여하는 일이니 이에 지원”
- ▶ 농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골프: “예체능 같은 부분이 다른 전공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균등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함.”

- 현재 예체능 분야에서 장학금 자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함.
- 형식적인 장학금 지원보다,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입장을 보임.
- 예체능 분야 자체가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함.

9. 현 예체능 분야 장학금 종류 및 현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 ▶ 태권도: “거주하던 지역에서도 장학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회에서 이겨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이런걸 대회 때 포스터 한 장이라도 붙여주면 좋겠음.”
- ▶ 발레: “현재 기준이 대학생까지인데, 대학교 때는 잘 활동을 안 하다가 이후에 활동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대학 범위를 조금 넓히면 좋지 않을까..”
- ▶ 골프: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균등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많아지면 좋겠음.”
- ▶ 현대무용: “무용의 경우 장학금 여부도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sns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음.”
- ▶ 현대무용: “잘하는 애들한테만 주는데 잘 하고 싶은 애들은 못 받는 거잖아.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성적을 볼 필요도 있음.”

- 전반적인 홍보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임.
- 많은 학생이 좀 더 균일하게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즉, 실기만이 아닌 성실함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함.
-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를 지속하고 있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10. 체육(음.미.체.기능)분야 특성상, 어떤 특별한 장학제도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태권도: “체육계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제도가 주어진다면 좋겠음.”
- ▶ 발레: “발레 용품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 현대무용: “대학원생의 경우 명목이 필요하다면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지급.”
- ▶ 농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 있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 현대무용: “워크숍 형태의 의료교육이나 부상 시 대처법을 알려주고 수업 이수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

- 특별 부분 장학금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
-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예체능 분야에서의 필수 교육 같은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존재하였음.

11. 분야별 훈격이나 규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훈격의 우선순위가 존재하나요?

- 요약: “골프의 경우 코리아오픈이 가장 큰 대회, 농구의 경우 리그 전체, 무용의 경우 국제콩쿠르, 서울 국제, 코리아국제, 동화 등, 무용의 경우 전부 비슷한 콩쿠르 같음.”
- ▶ 태권도: “대회 규모가 a,b,c등급으로 나뉜다면 a등급 3등이 c등급 1등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국대회와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전국체전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 ▶ 발레: “학급에서 1등을 먼저 선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즉 a급 대회 3등보다 c급 1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함.”
 - ▶ 골프: “규모가 작아도 1등으로 우승한 선수에게 우선순위가 가야 함.”
 - ▶ 현대무용: “a급 3등이 맞는 것 같음.”

-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으며 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1) 규모가 크고 명성이 좋은 대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 2) 규모와 상관없이 그 대회에서 1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
- 이 부분은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으로 추후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12. 선수(기타 전공 등)로서 장학금의 지원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 태권도: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함. 세계 무대에 못 간 친구들은 현재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제도거든요. 세계대회 나가려면 전국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니까..”
- ▶ 발레: “성취감과 동기부여”
- ▶ 현대무용: “조금 더 나의 미래를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 ▶ 농구: “자부심과 노력해야겠다는 의지”

- 장학금 지원은 선수에게 있어 큰 동기부여와 자부심을 가져다준다는 답변을 받음.

13. 장학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성취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 태권도: “대학원의 경우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오면 공부에 집중 가능함. 선수의 경우에는 대회 때 차량 지원비나 숙박비 정도의 소액만 지급해도 효과적임.”
- ▶ 발레: “학교 등록금을 안 내는 대신 그 돈을 투자해서 다른 곳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듦”
- ▶ 골프: “골프 실력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골프 장비 등에 투자”
- ▶ 농구: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께 덜 죄송하고, 장학금을 받는 것 자체로 자부심이 생김.”
- ▶ 현대무용: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기와 뿌듯함, 해냈다는 생각..”

- 장학금 수혜자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서 소액이라도 의미 있다고 답변함.

14. 장학금의 금액은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 ▶ 태권도: “대한체육회 장학금 200만 원에다가 연구 장학금 150만 원을 받음.”
- ▶ 발레: “대략적으로 총합해서 1700만 원...”
- ▶ 농구: “대략적으로 3~4천만 원..”
- ▶ 현대무용: “일회성 100만 원”

- 장학금 액수는 답변자의 예체능 분야별로 또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짐으로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장학금 선정의 기준이 체육(예체기능) 분야에도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태권도: “아님. 선발기준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함.”
- ▶ 발레: “예술 분야에서는 체육 분야에 비해 체계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반영이 큼.”
- ▶ 골프: “아님. 골프 분야의 경우 제대로 들은 것조차 없음.”
- ▶ 현대무용: “장학 심사위원들은 공인심판이면 좋겠음. 공정한 심사가 아닌 경우도 있음.”

- 모든 답변자들이 장학금 선정 기준이 예체능 분야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답변이 돌아옴.
- 따라서 개설하게 될 예체능 분야의 장학금 지급은 심사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16. 장학금 제도에서 개선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태권도: “너무 경기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등수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과 학교에서 예체능 계열로 얼마나 활동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 발레: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 학교장 재량으로 투자 같은 느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장학금이 있었으면 좋겠음.”, “홍보 부족. sns에 올라오면 관심 있으면 한 번쯤은 클릭해볼 것 같음.”
- ▶ 골프: “전문적이고 좀 더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장학금”
- ▶ 농구: “현재는 학교 내임(명성 및 인지도)도 중요한데 상위권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보다 조금 낮은 팀이나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전체적인 대학 리그 활성화가 가능하지...”
- ▶ 현대무용: “서류가 형식적이며 추천제도도 형식적이라 빼면 좋겠음. 증명이 가능한 활동경력 증명서 등이 쓰여야 함.”
- ▶ 발레, 현대무용: “학비 면제 등도 필요한 것 같음.”

- 기존의 순위별로 차등 선발되었던 방식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이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단편적인 기준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혜자의 적극적인 활동(단체 내 활동)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러한 부분은 장학금을 지급 기준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음.

17. 앞으로의 예체능 연구나 본인의 경력을 위해 어떤 장학금 지원을 바라시나요?

- ▶ 태권도: “대학교 이후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학원 생활이나 그런 거에 많이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음.”
- ▶ 현대무용: “연구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
- ▶ 발레: “티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 ▶ 골프: “대학원 혹은 학업의 경우 본인의 연구에 관련된 장학금이며, 골프나 운동의 경우 시합성과 관련하여”
- ▶ 농구: “대학원은 연구장려금을 주면 좋겠고 선수는 자기개발을 도와주는 장학금.”

-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학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이후의 연구 활동도 폭넓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 이러한 의견은 당사자들이 대학원생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원에 대한 장학전형은 없다는 점과 예체능 관련된 지원금이 없다는 점은 유의미한 결과로 사료됨.

18.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적절한 장학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 ▶ 발레: “ 대학생은 1년에 500만 원, 고등학생은 400만 원”
- ▶ 골프: “ 신중한 문제인 것 같으며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선수나 학자에 의해 산정될 필요가 있음.”
- ▶ 태권도: “태권도의 경우 부모님 지원이 있으니 1년에 최소 100만 원, 고등학생은 경기가 중요하니까 대회는 전부 출마해야 하니 150만 원, 대학생의 경우 300만 원이며 대학원의 경우 학기별로 300씩 지원.”
- ▶ 현대무용: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때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한 학기에 200~3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음”

- 전공 분야 및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 지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인 각 전공 분야별 차이를 두어야 함. 또한 실제 지급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따지고 추후 조사가 필요함.

2) 계속 장학금 관련 인터뷰

1. 계속 장학금 운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계속 장학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계속 장학금 정의: 선발 시 특정 시기까지 지속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

- ▶ 태권도: “계속 장학금 운영에 대해 아예 몰랐음. 준다면 그냥 학년별로 매년 새로 선발해서 주면 좋겠음.”
- ▶ 발레: “몰랐음.”
- ▶ 골프: “처음 들었음. 알았다면 받고 싶을 것 같음.”
- ▶ 농구: “처음 들었음. 취지는 좋으나 좋은 것 같은데 주변에도 받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음.”
- ▶ 현대무용: “처음 들었음. 장학금은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주 뽑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음.”

- 먼저, 인터뷰 대상자 모두 처음 들었다는 반응을 보임.
- 계속 장학금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지원보다 단기적으로 자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4장 활동형 장학전형 방향 수립 (ESG 장학전형)

1절 활동 장학전형에 대한 필요성

1) 현 장학전형의 거주제한으로 인한 미비점

- 2022년도 장학전형 연구에 관한 결과로 장학전형 통합, 홍보 강화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관한 결과로 2023년 상반기 장학 전형별 경쟁률 편차 완화라는 결과를 가져옴.
-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장학전형 선발결과에서 다함장학생(지역인재)는 경쟁률 미달이 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단순 홍보 부재가 아닌 다함장학생(지역인재)의 적격기준이 거주기간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음.

<표 28> 2022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하반기 선발결과

장학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접수 기준		
합 계	1.19:1		916
정규장학금	다함장학생(미래)	0.93:1	490
	다함장학생(다자녀가정)	6.86:1	50
	다함장학생(북한이탈주민가정)	0.95:1	20
	다함장학생(다문화가정)	0.53:1	40
	다함장학생(학교밖)	0.91:1	11
	다함장학생(장애)	0.55:1	20
	다함장학생(산업단지재직자녀)	2.03:1	30
채움장학금	국가자격증/어학성적	0.51:1	80
꿈트리장학생	예체기능	0.59:1	70

<표 29>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상반기 선발결과

장학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접수 기준	적격기준		
합계	2.27:1	1.59:1	634	
정규장학금	다함장학생(희망)	1.71:1	1.15:1	140
	다함장학생(다자녀가정)	2.57:1	1.74:1	180
	다함장학생(소상공인자녀)	1.43:1	1.03:1	60
	다함장학생(산업단지재직자녀)	2.00:1	1.53:1	40
	다함장학생(지역인재)	0.98:1	0.70:1	40
	우수인재장학생	3.20:1	2.31:1	161
지정장학금	시흥사랑장학생(고려대 신입학 장학생)	1.23:1	0.92:1	13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내 다함장학생(지역인재) 적격기준을 살펴보면, 관내 3년 이상을 거주 및 관내 소재의 대학 재학생 중 대학 추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함.
- 이러한 거주기간 3년 이상 거주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진학한 학생이 아닌 경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으로 판단됨.
- 반면 다함장학생(지역인재)를 제외한 다른 장학전형은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일관성이 요구됨.

<그림 5> 2023년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지역인재, 우수인재) 모집 요강

<p>다함장학생 (지역인재)</p> <p>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소재의 대학 (산업현 - 관내 고등학교 졸업)에 진학한 자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분 성적 및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p> <p>* 한국공학대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공시 선발 등 학교 (대학추천 필수)</p> <p>*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분 선정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가능.</p>	<p>대학생</p> <p>4명</p>	<p>*대학추천 (관내 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법정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또는 ㉡) ㉠ 주민등록표(초본)상 본인의 거주지가 시흥시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재(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시흥시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 외에 법정 보호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무국 문의) ● 2023년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시흥시 관내 소재의 학교 재학 중인 자 (관내 없는 야제기능 학교는 인정) - 대학신입생: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관내 없는 야제기능 학교는 인정) - 대학재학생: 무관 (관내, 관외 대학 인정, 단 해외 대학은 미인정)
<p>▲ 2023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지역인재 장학생 모집요강 발췌</p>		<p>▲ 2023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우수인재 장학생 모집요강 발췌</p>

- 인구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4세-26세 총 전입 인원은 11,041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 상반기 장학전형에 지원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시흥시에 유입률을 비교해봤을 때 전입률이 전출률보다 높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지역인재 장학전형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여짐.
- 이외에도, 장학전형 거주기간 제한은 시흥시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민 또는 시흥시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관내에 활동 중인 인원들이 장학전형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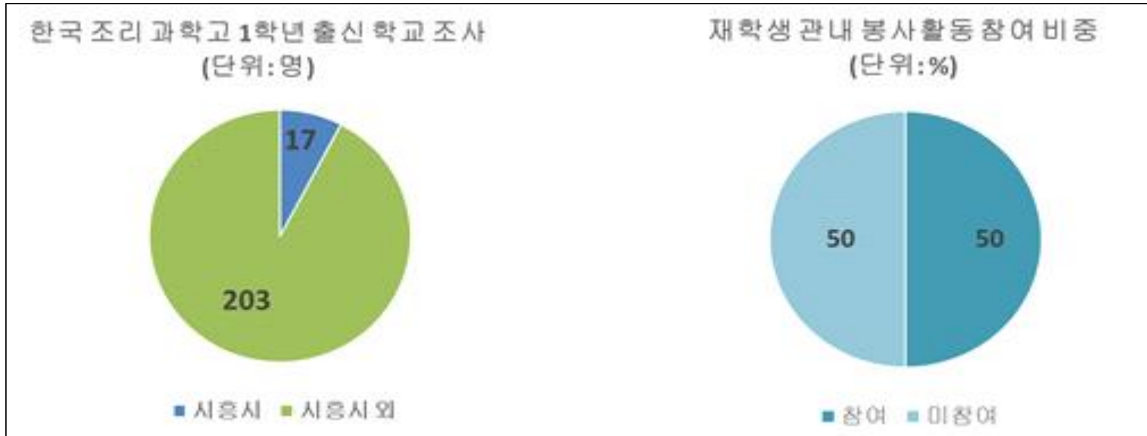
<표 30> 2022년 기준 시흥시 인구 14-26세 총 전입 전출 순 이동 통계

행정구역별	나이	2022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시흥시	14세	296	315	-19
	15세	339	349	-10
	16세	328	310	18
	17세	294	249	45
	18세	691	523	168
	19세	751	701	50
	20세	655	693	-38
	21세	950	833	67
	22세	1,212	1,146	66
	23세	1,244	1,146	98
	24세	1,323	1,332	-9
	25세	1,409	1,487	-78
	26세	1,549	1,630	-81
합계	11,041	10,764	277	

출처: 통계청

- 이에 대한 사례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입학생 중 관외 학생 비율은 92.27%지만,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내 전체 관내 봉사활동 참여비중은 50%를 차지함.
- 이는 시흥시에 거주하진 않지만, 관내 학교를 재학 중이며 관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이들은 관내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내 장학전형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성공적인 관내 유입을 위해, 거주지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거주이전이 어려운 부분과 거주제한 1년으로 인한 실질적인 장학제도 혜택 기한 제한의 문제점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만을 입학하기 위해 시흥시로 전입신고를 한 학생 수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그림 6> 한국 조리과학고 재학생 관내 봉사활동 참여비중



- 특히 타 재단 중 서울 장학재단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본시에 소속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거주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학생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본 연구팀은 현 정규 장학전형에 대한 보완 방향 수립을 위해 활동 장학전형이 만들어지거나, 지역인재 장학전형에 거주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표 31> 타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생 지원조건

타 지역 재단	장학생 지원조건
서울장학재단	서울 소재 학교 재학
화성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본인 또는 부모, 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 계속 거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으로 장학생은 인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자)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
안양시인재육성재단	1.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3.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거주 중인 면학장려가 필요한 만 24세 미만의 시민

2) 시흥시 관내 유관기관 및 운영 현황

- 현재 시흥시에는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흥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해 약 16개의 청소년 시설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발전을 위해 운영 중임.

<그림 8> 관내 청년 활동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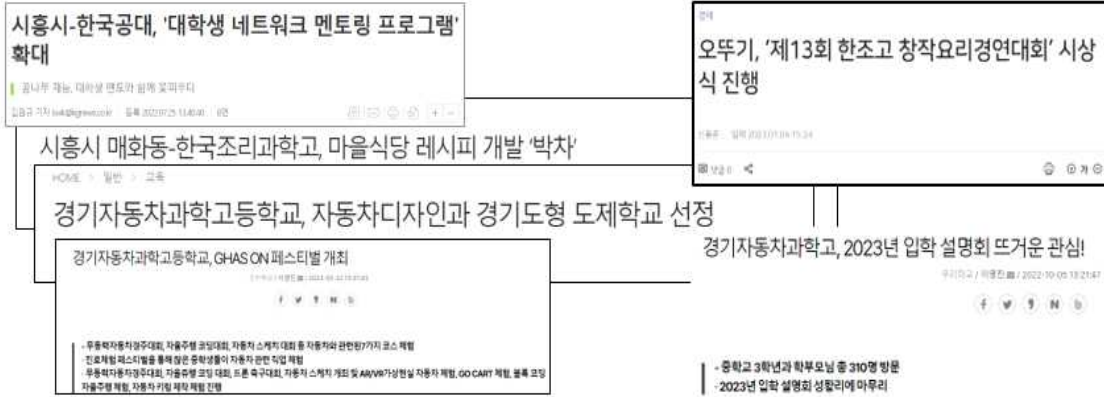
출처: 청년스테이션 공식 블로그

- 또한 청년과 청소년 뿐 아니라 중·장년, 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 단위 축제가 활성화되는 등 시흥시 관내에 다양한 자치활동 및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시흥시가 가진 강점으로 관내의 다양한 자치활동 및 문화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3) 시흥시 관내 운영 활동 현황

-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시흥시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기관 및 문화센터 내에서 청소년들의 대외활동 운영 중임.
-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포함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약 120개가 운영 중인 상태임.
- 특히 상기한 문화 및 자치활동 뿐 아니라 관내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도 진행 중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흥시 관내에는 총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되어있으며, 경기자동차과학교등학교,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군자디지털과학교등학교, 한국조리과학교등학교가 있음.
- 최근 한국조리과학교등학교는 매화동과 연계하여 마을식당 레시피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였으며(경인매일, 2021. 11. 30), 경기자동차과학교등학교는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선정되는 등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이러한 따라서 시민 자치활동이 활성화된 ‘시흥’의 특색을 살려 활동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이러한 문화행사를 살리고 필요 시 통합하는 등 예능 학생들과 시흥시를 위해 봉사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9> 시흥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공대에서 실행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출처: 경기종합일보, 경인매일, 뉴스저널리즘, 특성화고신문

2절 시흥형 장학전형 소개: 시흥형 활동 장학전형 ESG

1) 활동 장학전형의 방향성

- 상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 장학전형을 제시하고자 함.
- 장학전형 대상자는 기존의 정규 장학전형에서 선발되지 않은 자로 선발을 구상하였음.
- 이는 인재양성재단의 모토가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이며, 특히 서론에서 언급했던 거주기간 제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본적인 운영의 틀은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활동 방향성을 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 주제를 정하고 실시하게 하고자 함.
- 다만, 기본적인 틀은 최근 주목을 받는 ESG를 주제로 이에 맞는 시흥시 자치활동으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심사 진행 및 선발을 함.
- 장학금 지급은 선지급 형태가 아닌 1년간의 실행 완성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후지급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활동 장려를 할 필요가 있음.
- 활동 계획서에는 시흥시 관내 문화의 집 활동 뿐 아니라 자치활동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함.
- 따라서 이전 자치활동 또는 문화의 집 활동 내 ESG와 관련된 부분 중 희망하는 활동과 추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역 사회활동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과 더 나아가 새로운 활동들을 운영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음.
- 그러나 현재 재단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당장 시흥형 자치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 장학전형의 방향성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방향성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3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3> ESG 장학전형 방향성

정규장학금 선발 이외 장학전형으로 운영	정규장학금 탈락자 혹은 정규장학금 대상이 아닌 자로 선발 예) 거주기간 충족은 못 했으나, 시흥시 관내 활동 중인 자
운영방안	1) 신청서로 활동 계획서를 작년 기준에 맞춰 작성 후 활동 장학전형 신청 2) 계획서에 완성도와 활동을 중심으로 선발 (활동 기준: ESG에 걸맞은 활동 필수 참여) 3)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검토
결과보고	약 1년간 계획한 내용에 실행 완성도와 결과보고 소감문 발표를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

2) 활동 장학전형 운영방안

-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 선발기준에 예시로는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시간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 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ESG 장학전형은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시흥시 내에서 ESG를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장학전형은 참여자의 활동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된 인원들은 한 해 동안 관내에서 계획서에 제시한 ESG에 관련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들을 참여 및 추후 추가적인 ESG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학금 수여 방안으로는 해당 활동들을 바탕으로 활동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연말 최종적인 활동 성취도, 지역사회의 ESG 증진에 대한 기여도, 추후 활동 ESG 활동 계획 등을 중점으로 판단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ESG라는 기존의 재단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학전형을 시행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모집하고 지원자들이 활동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급적 구체적인 활동 가이드라인과 활동 인정 분야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ESG 활동 장학전형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음.
 - 1) 새로운 장학전형 개발로 재단의 비전과 핵심가치 접목
 - 2)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정체성 확립 가능
 - 3) 추후 다양한 재단 내 활동 개발 등으로 확장 가능
 - 4) 시흥시 인재양성 재단 홍보 효과

-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발이 아닌 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정규 장학전형 선발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단의 홍보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예능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기한 예체능 장학전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활동 장학전형은 재단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아닌 활동을 장려하고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이러한 활동 장학전형을 시작으로 기존의 관내 동별 자치활동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극복하고, 시흥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재단 자체 내 경진대회 개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관내 문화의 집 혹은 청소년 수련관, 자치 활동단체 등에서 소속 인원들에게 해당 활동을 장려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단 자체를 홍보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상기한 기대효과는 아래의 <표 34>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34> 시흥형 활동 장학전형 기대효과

<p>새로운 장학전형 개발로 재단의 비전과 핵심가치 접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이 아닌 활동을 장려하는 장학전형으로써,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접목 - 거주 인원 기준 미달자 등이 지원 가능함에 따라 다양성 충족과 정규 장학전형의 미비점 보완 가능 - 다양한 배움, 지역사회 활동 증가 및 인식개선 가능 - 자치활동 및 예능 학생들의 기회마련: 인재 발굴 및 후원 개발 가능
<p>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정체성 확립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 아닌 다양한 자치활동을 장려 및 권장하고 나아가 재단 자체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상위 단체로의 정체성 확립
<p>추후 다양한 재단 내 활동 개발 등으로 확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내 다양한 자치활동 및 운영의 기초를 마련 - 기존의 동별 자치활동뿐만 아닌 시흥시 전체를 아우르며 배움 및 인재양성 활동 개발 가능(동별 팀 대회 개최 등)
<p>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홍보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및 연말 관내 문화센터와 수련관 등에서 소속 인원들에게 장학금 지급 공지 및 안내로 자연스럽게 인재양성재단 홍보

5장 결론

- 본 연구는 장학전형 연구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과 시흥형 장학제도를 결합하여 “지역인재 발굴”과 “시흥교육 발전에 기여”를 위한 장학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또한,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언들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 장학생과 지원자들이 변화된 장학전형의 효과성 체감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년도 연구의 제언들을 발전시키고 시흥의 대내외적 특성을 분석하여 시흥형 장학전형 개발 및 제언을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흥형 장학전형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예·체·기능 장학전형, 연구 장학전형, 활동 장학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예·체·기능 장학전형을 보완하고, 활동 장학전형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1) 2023년도 장학전형 운영보완

- 먼저 2022년도 대비 2023년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전형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회에서 제안하고 실제로 변경된 장학전형 운영방안(장학 전형별 장학금 액수 통일화 및 통합), 서류접수, 신청방법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인력 및 사무국 내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 역시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3년 장학전형 현황분석에서는 다수의 수혜자가 ‘해외 유학 장학금’, ‘취업연계형 장학금’, ‘대학원 장학금’, ‘현장실습 장학금’ 등 활동성 장학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기숙사 장학금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장학전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2023년도 활동성 장학전형으로 개발된 ‘서포터즈’ 지원 희망 여부에 관해서는 비희망이 희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확실적인 서포터즈 활동 이외에도 전공-진로 관련 또는 다양성을 가진 활동 장학전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홍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홍보 문제는 추후 활동 장학전형을 통해 상호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음.

2) 예체능 장학전형 운영보완

- 예체능 장학전형의 경우, 사용 용어 수정 및 장학전형 선발에 대한 평가 배점 세분화 등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정적인 장학전형에서 높은 지원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먼저 재단에서 공시한 문서 등에 있는 용어 수정하였으며,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실제로 수정된 용어를 반영하였음.
- 또한, 평가 배점 세분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세분화 점수, 통합 실적, 메달 실적으로 구분함. 3가지 안들은 각 장단점 및 근거들이 존재하며 장학전형 관계자와 논의 및 소통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실제 장학전형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 타 재단 내 예체능 장학전형을 비교하였으며, 재단 내 예체능 장학제도가 수상실적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예체능 관련 현직자들과 인터뷰하였으며, 분야별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 및 현 장학전형의 보완점,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장학금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음. 이중 계속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장학금 공지는 학교나 각 장학기관의 홈페이지에 많이 공지되나, 예체능은 사교육이 많다 보니 학교에서 접할 일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 따라서 이 부분을 잘 보완한다면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예상됨.
- 다음으로 장학금을 심사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로 인해, 모두가 공평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따라서 추후 장학생 선별 실적 기준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활동형 장학전형 운영보완

- 현 장학전형은 거주제한으로 인해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미비점이 존재함.
- 특히 다함장학생(지역인재)는 거주제한이 3년이며,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주제한은 시흥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음.

- 타 지역 장학재단 내 장학생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서울장학재단 및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본시에 소속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거주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음.
- 그럼에도 이러한 장학전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규 장학전형에 대한 거주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 및 인재육성재단 비전 달성과 상기한 장학전형 설문조사 응답 등을 고려하여 활동형 장학전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장학전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흥시 관내 청년, 청소년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할 구역마다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자치활동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추후 확장성이 높으며 나아가 현재 시흥시인재육성재단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ESG 활동 장학전형을 제시하였음.
- 해당 전형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들에게도 재단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더욱 다양한 연령, 계층 분야로 확대되며, 나아가 시흥시인재육성재단의 홍보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경기종합뉴스. (2022. 07. 05). 시흥시-한국공대, 「대학생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http://www.ggoveral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
- 경인매일. (2023. 11. 30). 시흥시 매화동, 한국조리과학고와 함께 마을식당 레시피 개발 ‘박차’.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788>
- 뉴스저널리즘. (2023. 01. 04). 오뚜기, ‘제13회 한조고 창작요리경연대회’ 시상식 진행.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00>.
- 세계타임즈(2023. 6. 21).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자동차디자인과 경기도형 도제학교 선정.
<http://www.thesegeye.com/news/view/1065583594044557>.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홈페이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안내
<https://www.shinjae.or.kr/programs/user/scholarship/scholarship.asp>.
- 시흥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shyouth.or.kr/>
- 시흥시청년스태이션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0siheung21&from=postList&categoryNo=6>
- 장진명, 배은정, 김은별, 김남중, 이용우 (2022). 장학전형 운영 보완방안 및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연구: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전형 운영 현황 분석 및 실태 조사. 시흥: 시흥시인재양성재단.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2
- 특성화고신문. (22. 11. 09). 경기자동차과학고, 2023년 입학 설명회 뜨거운 관심. .
<http://www.sinmoon.net/news/view.html?section=110&category=118&no=3314>.

부 록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만족도 조사

안녕하세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사업의 장학전형 분석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진실한 응답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모든 응답은 통계적으로 분석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고객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은 장학사업 전형분석 등 관련에만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설문은 약 13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중한 시간은 할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

★★ 장학생 인적 사항과 기타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

학생과 보호자가 중복으로 접수되지 않게 한 학생당 한 분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장학생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이상

3. 장학생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직장인 ⑤ 기타

4. 장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대야동 ② 신청동 ③ 신현동 ④ 은행동 ⑤ 매화동 ⑥ 목감동 ⑦ 군자동 ⑧ 정왕동 ⑨ 배곧동 ⑩ 과림동
⑪ 연성동 ⑫ 능곡동 ⑬ 월곶동 ⑭ 장곡동 ⑮ 거북섬동

★★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관련 전형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

5.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한 장학전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다함(희망) ② 다함(다자녀) ③ 다함(소상공인자녀) ④ 다함(산업단지재직자자녀)
⑤ 다함(지역인재) ⑥ 우수인재 ⑦ 시흥사랑

6. 장학금 신청 이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알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장학생이 생각하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장학전형에 대한 종류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1. 새로 개편되었으면 하는 장학전형이 있거나, 신설되었으면 하는 장학전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① 기숙사 장학금 ② 취업연계형 장학금 ③ 현장실습 장학금 ④ AI 데이터 관련 장학금
⑤ 해외 유학 장학금 ⑥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⑦ 대학원 장학생 ⑧ 기타 ()

7-2. 재단에서 “활동성 장학생(서포터즈)” 을 모집하여 운영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 주요활동 : 재단 홍보, 재단 공식 행사 진행(아나운서 활동 등) 등

- ① 참여 ② 미참여

7-3. 현재 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홈페이지 개편 ② 장학금 신청 시스템 개선 ③ 선발인원 부족 ④ 선발기준 변경 ⑤ 홍보 부족

7-4.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있어 어떤 부분을 추가 및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주기간 점수 향상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완화 ③ 성적 비중 향상
④ 봉사활동 점수 추가

7-5. 장학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6. 작년 장학 전형에 비해 올해 장학전형 개수가 줄어든 사실을 느끼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7-7. 장학전형의 금액기준이 통일된 것이 지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8. 고등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기준은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8-1. 8번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 경우, 적정 성적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현재 고등학생 · 대학신입생 50점(우수인재 90점), 대학재학생 70점(우수인재 90점))

9. 재단 장학사업 관련 정보는 어디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재단 홈페이지 ②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③ 인스타그램 ④ 블로그 ⑤ 카카오톡 ⑥ 한국 장학재단
⑦ 친구 · 지인 ⑧ 리플릿, 홍보물 ⑨ 기타()

10. 장학생이 신청한 장학분야에 대한 선발인원은 적절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0-1. 10번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주관식)

11. 장학생이 생각하는 장학금 선발기간은 적절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1. 11번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주관식)

12. 장학금 신청 시, 서류접수 및 신청방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2-1. 12번 항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한 경우, 어떤 방법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① 서류 제출 및 신청을 도와줄 전담센터 필요 ② 팩스 서류접수 추가 ③ 어플을 통한 간편 접수

- ④ 기타()

★☆☆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된 장학생에게 드리는 질문 문항입니다. ☆☆☆

13. 장학금을 수혜 후 주로 사용한 용도는 어디인가요? (복수 선택 가능)

- ① 학원 등록비 ② 식비 ③ 교통비 ④ 생활용품 구입 ⑤ 주거비 ⑥ 등록금납부 ⑦ 서적 구매
⑧ 문화생활비 ⑨ 통신비 ⑩ 의료비

14.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이 도움 되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4-1.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주관식)

★☆☆ 2023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관련 질문 문항입니다. ☆☆☆

15.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13시 이후에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하셧습니까?

- ① 참석 ② 미참석

16.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불만족

17. 장학증서 수여식이 불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주세요.
(주관식)

18. 장학증서 수여식 포토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② 불만족

19. 장학증서 수여식 “청년 미래 강연”을 주제로 김태원 강사님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셧습니다. 강사와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떠셧습니까?

- ① 만족 ② 불만족

20. 재단에서 초빙했으면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주관식)

★☆☆ 장학금 지급 관련 질문 문항입니다.(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만 해당) ☆☆☆

장학생 장학금 지급 계좌 작성 안내(장학금 지급 7월 말 예정)

*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장학생 본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기입해 주세요.

(청약, 적금, 증권계좌 등 입금한도가 200만원 미만이나 휴면계좌 등은 지급 불능)

ex) 100만 한도 통장에 잔액이 10만원 있을 경우, 장학금액이 잔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불능

* 보호자명의 계좌 등은 장학금 지급 불가 (반드시 위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장학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기입

ex) 농협은행/000/00000000000000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단, 카카오뱅크 mini, 토스유스의 경우 지급 제한될 수 있음)

22. 장학생 생년월일

(주관식) 예: 2010년 1월 1일

23. 귀하(장학생) 장학금 신청 시, 소속학교를 말씀해주세요. (필수)

(주관식)

24. 귀하(장학생) 연락처를 말씀해주세요. (필수)

(주관식) (형식 : 010-0000-0000)